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신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5. 19.(금) 18:00 < 5.20.(토) 조간 > 배포 2023. 5. 19.(금)

한-싱가포르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시동 걸다

- 제1차 한국-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에서 협력 논의

- 양국 간 디지털 비즈니스 동반관계(파트너십) 강화 및 협력성과 가시화 기대

한국-싱가포르 디지털 기업들이 모여 세계(글로벌)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였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: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5월 19일(금) 무역협회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(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, MTI)와 「제1차 한-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(Digital Economy Dialogue)」를 개최하였다.

이번 대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 「한국-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(Korea-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)」 발효('23. 1월)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개최되었다.

이번 행사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25개사(한국 14개사, 싱가포르 11개사)를 비롯하여 50여 개 무역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하였다. 기업들은 ▲클라우드(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), 핀테크(금융 기술) 등 디지털 솔루션, ▲공급자-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, ▲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(이동수단), 확장 가상 세계(메타버스) 등 디지털 기술 개발·활용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(협력사례) ①(현대차-Singtel)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 내 5G 기반시설(인프라) 네트워크 솔루션 구축 협약 체결
②(N15파트너스-Tenity) 국내 핀테크(금융기술) 신생기업(스타트업) 발굴 및 동남아 진출 지원 협력

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"싱가포르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(인프라)과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갖춘 아세안의 디지털 거점(허브) 국가로,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기술(ICT) 및 제조 기술과의 협력 시너지가 매우 클 것"이라고 기대를 내비치는 한편, "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규범 마련 및 국내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"고 밝혔다.

한편, 정 차관보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인 림(Jane Lim) 차관보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디지털 경제, 공급망, 그린 에너지 등 신통상 쟁점(이슈) 협력을 위한 상호 관심 사항을 공유하고, 급변하는 세계적(글로벌)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공조 의지를 확인하였다.

담당부서 <총괄>	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	책임자	과 장	고장원 (044-203-48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채원 (044-203-4885)
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김민혜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서 (044-203-571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